



##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('26~'30) 확정

- 1인가구·고립·돌봄위기가구 등 변화하는 가족환경 대응 -
- 돌봄·일생활균형·가족포용 정책 강화로 가족정책 새 틀 마련 -

- AI 활용 고위기·고립가족 발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대응 강화
- 가족관계교육 강화, 여가·소통공간 확충 등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
-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근거규정 마련 등 제도의 사각지대 개선
- 한부모, 1인 가구, 이주배경,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
-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평등하고 가족친화적 일터·사회환경 조성

□ 성평등가족부(장관 원민경)는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 「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(2026~2030)」을 9일(화)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향후 5년간 급변하는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.

○ 이번 기본계획은 1인가구, 이주배경가족의 증가와 새로운 취약·위기가족의 등장,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
-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, 비친족가구, 이주배경인구 등이 지속 증가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20%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,
  - 가족 형태에 따른 경제적 격차와 차별, 돌봄 부담의 성별 편중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소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.
    - \* '24년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(488.7만원) 대비 한부모 가구 소득(294.6만원)은 약 60.3%에 불과
    - \*\* '24년 기준 맞벌이가구 가사노동시간 : 남편 1.24시간 / 아내 3.32시간
  
- 이에 더하여 경제적 빈곤이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, 우울 등과 결합한 복합적 위기로 발전하고,
  - \* 고립은둔 청년 비율 : ('22) 24% → ('24) 5.2% / 가족돌봄청년 우울감 유병률('24) : 61.5%
- 고립·은둔청(소)년, 가족돌봄청년, 경계선지능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.
  
-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, 정부는 “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”를 비전으로 설정하고, 4대 영역과 12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한다.
  - 첫째, ‘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’을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 형태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  - 둘째, ‘기본생활 보장 강화’를 통해 취약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 내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.
  - 셋째, ‘사회적 돌봄 확충’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돌봄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.
  - 넷째, ‘일·생활·가족의 균형 강화’를 통해 성평등한 일터 조성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구축을 추진한다.

비전	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	
목표	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	가족친화적 일터·사회환경 조성
대 과제	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	모든 가족을 위한 포용적 지원 강화
		가족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
		민주·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지원
	기본생활 보장 강화	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
		가정 내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
		가족이 함께하는 소통·여가공간 조성
	사회적 돌봄 확충	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질 제고
		돌봄위기 대응 서비스 강화
		돌봄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
	일·생활·가족의 균형 강화	성평등한 일터 조성
		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마련
		일·생활·가족이 공존하는 일터 확산

- 특히 가족 형태 중심 분절적 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족이 직면한 돌봄·고립·관계·생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.
  - 고립·은둔 청(소)년, 가족돌봄청년, 경계선지능 가족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,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족서비스 혁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  - 아울러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.
-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,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,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.
  - 이를 통해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, 돌봄과 일, 가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.

□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“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모습과 상황이 다양해진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”이라며

○ “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확대하고,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*[대과제1] 모든 가족에 대한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**

**[위기·고립가족 발굴 및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강화]**

□ 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,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의 위기가족을 신속히 지원한다.

○ 위기정보 및 AI 발굴모형 개선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하고, 발굴된 취약계층에게 지방정부와 가족센터가 협력하여 수요자에게 필요한 가족상담, 사례관리 등 가족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·제공한다.

□ 아울러 사회적 고립가족을 위한 특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립·은둔 청소년·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.

**【 고립은둔 청소년·청년 지원체계 】**

고립·은둔 위기군	발굴·선정	지원	종결
<b>9~18세 청소년</b>	<b>청소년 지원기관</b> · 학업중단정보, 지역사회 안전망 등 활용 발굴 · 청소년용 스크리닝 척도 활용 진단·분류	<b>청소년 지원기관</b> · 1:1 방문 심리·정서 상담 · 학습 지원 · 가족관계개선 등 맞춤형 회복·치유 활동	<b>청소년 지원기관</b> ·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· 유관 자원 연계
	↓ <b>발굴 시 상호 연계</b> ↓		↓ <b>19세 도달시 연계</b>
<b>19~34세 청년</b>	<b>청년미래센터</b> · 온라인 채널, 내원 발굴 · 위기도 스크리닝(척도)	<b>청년미래센터</b> · 일상회복·공동생활 프로그램 · 취업 연계 등	<b>청년미래센터</b> ·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· 유관 자원 연계

□ 가족관계 교육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높이고\*,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강화하며, 서비스 이용자 중심\*\*의 맞춤형 가족관계 교육을 확대한다.

\* 정부24 통해 교육과정 안내 이동수당 부모급여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수령지를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링크 QR코드안내문 발송

\*\* 맞벌이한부모 등 대상 주말야간 가족관계 프로그램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시 가족관계교육 연계 등

### [가족의 변화를 고려한 포용적 제도 기반 마련]

□ 가족구조 및 형태, 가족에 대한 인식에 대한 그간의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법·제도 정비를 추진한다.

○ 미혼모가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된 법·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,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안\* 마련을 추진한다.

\*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실상 출생신고가 막혀있는 미혼부 자녀를 위해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'생부'를 추가,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 입증하여 미혼부의 인지효력 없는 출생신고 규정 마련

○ 저소득 미혼모·부 등 취약가족의 자녀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운영을 확대한다.

\* 미혼모가 병원 외 장소에서 출산 시 출생신고를 위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지원 / 미혼부의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구조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등

□ 변화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와 이주배경 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.

○ 가족센터의 1인가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생애주기별·영역별 기본적 생활역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\*을 개발 및 보급확산한다.

\* 1인가구 관련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관계, 돌봄, 금융, 안전, 주거 등의 영역에서의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

- 이주배경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을 위한 ‘다문화가족지원법’ 특례규정 신설\*을 추진하고,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족정책과 생활정보를 15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

\* 이주배경 아동·청소년도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

## [대과제2] 모든 가족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

### [아동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생활보장 강화]

- 아동양육가족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.
  - 먼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\*하고,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추가급여를 지급한다.
    - \* '26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여 '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
  -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, 한부모의 자립의지 제고를 위해 소득별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한다.
    - 특히 취약계층인 미혼·한부모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·의료적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, 생계가 곤란한 임산부의 경우는 긴급복지를 적극 지원한다.

### [가정폭력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]

- 혼인관계, 사실혼 외에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 대응을 위한 법·제도를 정비하고,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선과 주거 독립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, 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을 추진한다.
  - \* (현행) 6개월~최대 1년 → (개선) 필요시 최대 1년 6개월 이내
- 국제결혼에 대한 성차별·인권 침해적 광고 방지를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와 가정폭력, 이주여성 상담소·보호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.

## [가족과 함께하는 여가·소통공간 조성]

- 지역 생활권 기반의 상생 여가·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 간 소통과 함께하는 여가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.
  -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가족 단위 여가활동과 주민 교류를 지원\*하고, 바우처\*\* 제공을 통해 저소득 취약가족의 여가활동을 지원한다.
    - \*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확대 / \*\* 통합문화이용권, 스포츠강좌이용권
  - 지역 내 가족서비스 허브인 생활형 SOC 가족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, 사회적 활동 기회가 부족한 취약가족을 위한 체험활동플랫폼\*도 조성한다.
    - \* 다문화가족 교류·소통공간(다가ON),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, 반다비 체육센터 등

## [대과제3] 모든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확충

### [아동 돌봄의 지역사회 및 국가책임 강화]

-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을 바탕으로 ‘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’ 모델을 확산하고,

#### 【 운동네 초등돌봄·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】

구분	'25년	'26년
돌봄 참여 지원	학교 중심(일부 지역에서만 학교-지역 협력) 초1·2 집중 지원	학교-지역사회 유기적 협력 초1·2 집중 지원 + 초3 이상 사각지대 해소*
무상 프로그램	안정적 참여 시간(매일 2시간) 보장 중심 초1·2 집중 지원	초3 프로그램 선택권(연 50만원) 강화 초1·2는 기존 방식으로 지원
안전 관리	귀가 안전 관리, 프로그램 등 검증 관리	안전 관리 지속 강화

\* 초3~6은 돌봄 수요(25년 참여율 초3 6.0% 초4 2.2% 초5 1.0% 초6 0.8%)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

- 방과 후 마을돌봄체계를 개편하여 브랜드 일원화\*를 추진한다.
  - \* 지역아동센터, 다함께돌봄센터로 확연히 구분되는 명칭을 통합 브랜드로 리뉴얼

□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.

-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, 지원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양육가정의 돌봄부담을 경감한다.
-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마련과 공급과 함께 지역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\*한다.

\* 지역별 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역별 아이돌봄사 매칭 및 대기관리 가능토록 정보시스템 개선 등

### [사각지대 돌봄위기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]

□ 새로운 가족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돌봄위기에 처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개인 또는 가족이 원하는 임종,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족센터 우수 프로그램을 확산·보급하고, 생애 말기 가족돌봄자와 유가족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.

#### 【 가족센터 생애말기 돌봄·유가족 지원 사업 】



**돌봄가족 심리지원 프로그램**  
- 인생의 돌봄 -

일	시	내	상
4/13(월), 4/20(월), 4/27(월)	13:30-15:00	1회	가족지원센터(총 48개)
내	상	가족돌봄(간접) 등 3종 하고 있는 성인 10명	

[ 자살유족 지원사업 ]

**소중한 사람들**  
나누고 기원하는 시간

\*소중한 이들의 마지막 이후 그 남방을 마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,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남방의 애도와 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"

사업안내

**1. 참여대상**

-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은 성인 유족
- 관망구 거주 중 주민

**2. 프로그램**

- 자조모임
-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
- 힐링프로그램
- '완대이클래스, 나들이 등 외부활동'


**3. 사례관리**

- 개인상담 '1:1 개인상담'
- 대표번호 | 051-518-8700 (내선 5번)
- 서비스 연계 '자원연계 및 치료비지원'

**4. 문의 [자살예방팀]**

- 대표번호 | 051-518-8700 (내선 5번)
- 담당자 | 070-7706-7592

부산광역시 송정구송정동 300-1 GMHC 관동구영선천안국제치연의 YSU 영산대학교



**자살유족 힐링 프로그램**

예술행동을 통한 심리적 치유 및 자기표현

**운영장소** 제주시(마린드링크 교육실(제주시 안도1리5길 10, 2층))  
**운영대상** 제주시내 자살 유족  
**운영기간** 예술 활동용 통한 심리적 치유 및 자기표현  
 2020년 05월 04일(월) ~ 2020년 06월 29일(수)  
**신청방법**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신청서 제출하기

- 청소년과 한부모 유관시설을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의 조기 발굴과 상담을 지원\*하고, 경계선 지능 아동·청소년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자 코칭을 제공한다.

\* (한부모가족복지시설) 입소자 경계선 지능 진단검사 실시  
(청소년상담복지센터) 경계선 지능 청소년 상담 및 발달프로그램 지원 등

## [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]

- 가족을 돌보는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.
- 가족돌봄자의 고립과 소진 예방을 위해 교육과 상담, 휴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, 가족요양제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가족 내 성평등한 돌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.
-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\*을 마련하고, 돌봄노동자의 안전·인권 침해 대응을 강화\*\*한다.

\* 가이드라인 제작·보급, 이용자 대상 교육 활성화 등

\*\* 성희롱 피해상담 및 심리정서치유지원 확대, 성차별 성희롱 피해 구제 등 보호조치 실시

## [대과제4] 모든 가족의 일·생활·가족 균형 강화

### [성평등한 일터 조성 및 일하며 돌보는 모든 가족 지원 강화]

- 성평등한 일터 조성을 위해 조직 내 임금·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‘고용평등공시제’\*를 도입하고, ‘적극적 고용개선조치’를 통해 고용분야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강화한다.

\* ①법 개정안 마련 및 발의('26.上) → ②법령안 통과 및 공시 시스템 구축 추진 ('26.下) → ③공공 및 민간부문 대상 시행('27~)

- 남성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해 가족센터, 공동육아나눔터, 육아 종합지원 센터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.

### [가족친화문화 확산 및 지역밀착형 가족친화환경 조성]

□ 일·가정 양립 및 기업의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.

- 참여 기업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고, 지역·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친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한다.
-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대상 일·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추진\*한다.

\* 근로시간 단축, 유연근무 등 제도 확산을 위해 교육 홍보 등 지원

- 【붙임】** 1. 「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(‘26~’30)」 추진방향  
 2. 「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(‘26~’30)」 인포그래픽

담당 부서	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윤아	(02-2100-6321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화	(02-2100-6329)
담당 부서	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	조훈희	(044-203-6026)
		담당자	사무관	나은서	(044-203-6027)
담당 부서	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	책임자	법무심의관 직무대리	이윤구	(02-2110-3164)
		담당자	검 사	김구열	(02-2110-3164)
담당 부서	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기획혁신담당관	책임자	과 장	강연경	(044-203-2211)
		담당자	사무관	우희정	(044-203-2218)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상윤	(044-202-2310)
		담당자	서기관	안웅식	(044-202-2304)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현	(044-202-7496)
		담당자	사무관	정희성	(044-202-7546)



**붙임 1**

**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추진 방향**

**비전**

**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**

**목표**

**모든 가족의 기본적인 삶 보장**

**가족친화적 일터·사회환경 조성**

추진 과제	영역 (4개)	정책과제 (12개)
	①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	① 모든 가족을 위한 포용적 지원 강화 ② 가족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 ③ 민주·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지원
	② 기본생활 보장 강화	① 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 ② 가정 내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③ 가족이 함께하는 소통·여가공간 조성
	③ 사회적 돌봄 확충	①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질 제고 ② 돌봄위기 대응 서비스 강화 ③ 돌봄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
	④ 일·생활·가족의 균형 강화	① 성평등한 일터 조성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마련 ③ 일·생활·가족이 공존하는 일터 확산
추진 체계	◆ 가족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◆ 지역 기반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가족센터 기능 강화 ◆ 디지털·AI 혁신을 통한 가족서비스 고도화	

분야	제4차 기본계획('21~'25)	제5차 기본계획('26~'30)
사각지대 해소	-	<b>AI 도입을 통한 사각지대 위기가족 발굴 + 사회적 고립·은둔, 경계선지능인 지원</b>
가족 다양성	미혼부의 출생신고 요건 완화 (모의 정보 일부 부존재, 비협조시 限)	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<b>법제 마련</b> 및 <b>법률지원서비스 강화</b>
다문화 가족	다문화 아동·청소년 중심 언어발달, 중도입국 조기적응 지원	<b>이주배경아동·청소년으로 대상 확대</b> * 출생등록, 교육, 체류, 자립까지 포괄적 지원
1인 가구	여성 1인가구 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	건강, 안전, 관계망 등 생활 전반 + <b>종합적 사례관리 및 고위기 지원 강화</b>
한부모· 미혼모	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확대 비양육 부모와 관계맺음 지원 양육비 채무불이행 제재 강화	복지급여 등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+ <b>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등 자립 유인</b> + <b>양육비 선지급제 이행 강화</b>
위기 가족	가족역량강화사업* 단계적 확대 * 재난·재해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 취약· 위기가족 발굴 및 서비스 연계	<b>생애 말기 돌봄 및 유가족 지원</b> + <b>경계선 지능인, 가족돌봄청년 등</b> 복지 사각지대 가족 지원
돌봄친화 사회 조성	육아휴직 급여 인상, 평등한 돌봄 확산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확대 등	<b>성평등한 일터,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으로</b> <b>일하며 돌보는 모든 가족을 위한 지원</b>



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

#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

## 포용적 사회 기반 조성

- 1 모든 가족을 위한 포용적 지원 강화**
  - 사각지대의 위기가족 신속 지원
  - 고립·은둔청소년·청년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
  - 가족관계 교육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확대
- 2 가족 변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**
  -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관련된 법·제도 정비 추진
  - 1인가구, 이주배경가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강화
- 3 민주·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지원**

## 기본생활 보장 강화

- 1 다양한 가족을 위한 경제적 자립 지원 확대**
  - 아동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
- 2 가정 내 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**
  -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 대응 법·제도 정비
  -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서비스 강화
- 3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공간·여가문화 조성**

## 사회적 돌봄 확충

- 1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및 질 제고**
  - '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' 모델 확산
  - 정부지원 확대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
- 2 돌봄위기 대응 서비스 강화**
  - 경계선 지능인 등 복지사각지대 가족 지원
  - 사회적 재난 등 위기 가족 대상 정서·돌봄 지원
- 3 돌봄자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**
  -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추진

## 일·생활·가족의 균형 강화

- 1 성평등한 일터 조성**
  - '고용평등공시제' 도입,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
  -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지원
- 2 가족친화 사회환경 기반 마련**
  -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
  - 지역 밀착형 가족친화 환경 조성
- 3 일·생활·가족이 공존하는 일터 확산**
  - 실근로시간 단축,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
  - 남성의 양육 참여 확대 지원